

# '2019VMA' 방탄소년단, 베스트 그룹·K팝 2관왕 영예

## 음악채널 MTV 개최 시상식...장기 휴가로 불참

그룹 방탄소년단이 불참에도 2019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올랐다.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푸르덴셜센터에서 '2019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이하 '2019 VMA')가 개최됐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첫 번째 장기 휴가로 인해 시상식에는 불참했다. 이번 '2019 VMA'에 신설된 베스트 K팝 부문은 시상식에 앞서 레드카펫에서 시상이 진행됐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블랙핑크, 엑소, 몬스타엑스, NCT 127, TXT(투모로우 바이 투

게티)가 후보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방탄소년단이 시상식에는 불참했지만, 팬 아미가 레드카펫 현장에서 이들의 이름을 연호해 눈길을 끌었다. '베스트 그룹' 부문에는 5 세컨즈 오브 서머, 백스트리트 보이즈, 블랙핑크, CNCO, 조나스 브라더스가 노미네이트된 가운데, 방탄소년단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총 2관왕을 차지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19 VMA'에서 베스트 그룹, 베스트 K팝,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베스트 안무, 베스트 아

트 디렉션까지 총 5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할시가 피쳐링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는 베스트 K팝, 베스트 컬래버레이션 부문에서 경쟁했다. 더불어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안무를 만든 퍼포먼스 디렉터 손성득, 퀵크루(Quick Crew)는 베스트 안무 부문에, 뮤직비디오 아트 디렉터로 참여한 무이(MU:E)의 박진실·김보나 미술감독이 베스트 아트 디렉션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편 '2019 VMA'는 음악채널 MTV가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올해의 비디오,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노래 등 23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가졌다.



## 공효진, '동백꽃 필 무렵' 선택 이유 "다른 배우 주기 아까워"

민고보는 로코퀸, 3년여만의 안방극장 컴백작



소리 하네"를 외치는 '생활 밀착형' 치정 로맨스다. 공효진은 지금까지 공개된 티저 영상과 포스터를 통해 사랑스러운 매력에 예고한 동백역을 맡았다. 공효진은 '동백꽃 필 무렵'의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공효진은 "금세 내용에 푹 빠져들었다"고 했다. "그동안 인상준 작가님의 드라마를 봐오면서 대사를 아주 맛깔나게 쓰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도 역시나 연재소설을 보는 것처럼, 다음 회가 언제 나오는지 궁금해서 재촉하게 만들었던, 손에 꼽을 정도로 재미있는 대본이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배우가 아닌 자신이 꼭 하고 싶었던 이유였다. 동백이 표현할 게 많은 캐릭터였다. 나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동백'은 순수하지만 여태 해온 캐릭터들보다는 용기도 없고 겁도 많은 캐릭터"라고 설명한 공효진. 그도 그럴 것이 동백은 세상의 두터운 편견에 움크

"다른 배우에게 주기 아까웠다." '민고 보는' 로코퀸 공효진이 3년여만의 안방극장 컴백작으로 '동백꽃 필 무렵'을 선택한 이유다.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극본 인상준/연출 차영훈)은 편견에 갇힌 맹수 동백을 '사랑하면 다 돼!'라는 무조건적인 응원 과 지지로 깨우는 '춘추파탈' 황용식의 폭격형 로맨스. 더불어 동백과 용식을 둘러싼 이들이 "사랑 같은

리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특유의 천진함과 강단으로 곳곳하게 버티며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려 노력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제대로 사랑을 베풀 줄 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했던 역할과 달랐고, 단순하게 설명이 가능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과 연기가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그의 대체로운 매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푹 빠져들 이유 중 하나는 동백뿐 아니라 모든 캐릭터들이 새롭고 재미있었다는 점. 그래서 "다른 역할들도 탐날 정도"라는 공효진은 "너군다나 캐스팅도 너무 찰떡인데, 그 이상의 케미를 보여주시더라. 다들 신나게 찍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드라마에 녹아들어, '동백꽃 필 무렵'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다. 웃음과 눈물도 동시에 줄 수 있는 풍성한 작품이어서, 기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동백꽃 필 무렵'은 '쌈 마이웨이'의 임상준 작가와 '함부로 애틋하게', '너도 인간이니'의 차영훈 감독이 '백희가 돌아왔다'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겨울연가', '해를 품은 달', '닥터스', '쌈 마이웨이', '사랑의 온도' 등 수많은 히트작을 선보인 '드라마 명가' 팬엔터테인먼트가 제작을 맡았다. '저스티스' 후속으로 오는 9월 18일 수요일 밤 10시 KBS 2TV에서 방송된다.

## 지창욱x원진아, 냉동인간의 '해동' 로맨스

tvN 새 주말드라마 '날 녹여주오' 9월28일 첫방

'날 녹여주오' 지창욱 원진아가 안방극장에 돌아온다. 27일 tvN 새 주말드라마 '날 녹여주오' (극본 배미경/연출 신우철)은 지창욱과 원진아의 냉동인간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날 녹여주오'는 24시간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남녀가 미스터리한 음모로 인해 20년 후 깨어나면서 맞이하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 이틀만 들어도 설렘 케미가 폭발하는 지창욱, 원진아의 조합 무엇보다 냉동인간이란 소재로 펼쳐질 색다른 해동로맨스로 기대를 모은다. 공개된 포스터에서도 '너와 내가 가장 뜨거운 순간 33'이라는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다.

인간의 평균 체온이 36.5도, 33도는 저체온을 의미한다. 그런데 마동찬(지창욱 분)과 고미란(원진아 분)의 체온은 가장 뜨거워져도 33도다. 두 사람은 '냉동인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24시간만 냉동됐다가 깨어날 예정이었지만, 눈을 떴을 땐 20년 이 지나있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한다. 설상가상, 생존하기 위해선 체온이 33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부작용을 얻게 된다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들에게 뜨거운 사랑은 금지 항목이다. 가슴이 뛰고 체온이 올라갈수록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 그래서일까. 희뿌연 아이스가 피어오르는 곳에서 잠을 자듯 누운 채로 얼어있는 듯한

마동찬과 고미란 사이엔 애뜻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제작진은 "지창욱과 원진아가 촬영장에서도 포스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콘셉트를 완벽하게 이해했고, 역할에 '빙(氷)의 해' 안전히 녹아드는 멋진 호흡을 보여줬다"라는 촬영 후일담을 전하며, "냉동인간으로 젊음이 박제돼버린 이들이 2019년, 어떻게 세월의 간극을 매워나갈지 분방송까지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 '꿈워 있는 그녀', '우리가 만난 기적'의 백미경 작가와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신사의 품격' 신우철 감독이 의기투합, 최고의 히트작 메이커의 만남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날 녹여주오'는 '호텔 델루나', '야스달 연대기 Part 3' 후속으로 오는 9월28일 토요일 밤 9시 tvN에서 처음 방송된다.

## '컴백' 선미, 신곡 '날라리' 재킷 공개...카리스마+화려함

가수 선미가 카리스마와 화려함으로 무장한 신곡 '날라리' (LALALAY) 재킷 사진을 공개했다. 선미는 27일 오후 6시 국내외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날라리'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신곡 발표는 싱글 '누아르' 이후 5개월만이자, 공식적인 방송 활동은 '사이렌' 이후 약 1년 만으로 기대를 더하고 있다. 공개된 재킷 속 선미는 화려한 색깔의 플라워 패턴 원피스와 머리에 나비 장식을 꽂아 화려한 스타일링을 완성했다. 여기에 강렬한 눈빛과 카리스마로 자신감을 표현해내며 고혹적이고 기품이 넘치는 자태를 선보였다. 신곡 '날라리'는 지난 3월 진행된

북미와 멕시코 투어 중에 영감을 얻어 작업한 선미의 자작곡이다. 곡 전반을 주도하는 댄스홀(Dance-hall)과 라틴(Latin) 풍의 이국적인 사운드 위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가사가 인상적인 '날라리'는 강렬하게 인트로를 압도하는 태평소 가락을 전면에 내세워 한국만의 바이브(Vibe)를 믹스 매치한 곡이다. '날라리'는 저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비트와 시원하게 이어지는 멜로디가 함께 어우러지면서도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독특한 매력을 지녔다. 특히 선미는 태평소를 부르는 또다른 말인 '날라리'를 '난 Naughty', 'Captain', '날라' 등의 가사말로 다채롭게 변형해 유니크한 매력을 더했다.



열정의 대륙 남미에서 출발해 '흥'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날라리' 같은 선미에 의해 완성된 독특한 음악 '날라리'가 늦어움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뉴스1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